

7월 안방 뒤흔든다... '미스터 선샤인' 압도적인 티저



이병헌·김태리 주연 tvN 토일드라마 네 번째 티저 공개... 기대감 폭등시켜

이병헌과 김태리가 7월 안방극장을 뒤흔들 테세다. tvN 토일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두 가지 버전의 네 번째 티저를 전격 공개, 기대감을 폭등시키고 있다.

오는 7월 7일 밤 9시 첫 방송 예정인 tvN 토일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극본 김은숙/ 연출 이응복/ 제작 화엔답퍼체스, 스튜디오드래곤)은 '최고의 필름' 김은숙 작가와 '히트작 메이커' 이응복 감독이 '태양의 후예', '살출하고 찬란한 神도 깨버리' 이후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한 작품.

이와 관련 2018년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만들 '미스터 선샤인'이 두

가지 버전으로 완성된 새로운 티저를 공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8일(토) tvN 채널과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동시에 오픈된 두 가지 버전의 네 번째 티저에는 각각 30초 동안 각기 다른 색깔의 가슴 떨리는 전율과 감동이 고스란히 그려졌다.

첫 번째 버전 티저 영상에서는 이병헌과 김태리가 격변하는 조선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운명이 담겼다. 칠후 같은 어둠 속 지붕 위를 달리는 복면의 두 사람의 자태가 서두를 장식한 상황. 이어 노비 출신 미 해병대 장교 유진 초이(이병헌)의 "그건 왜 하는 거요 조선을 구하는 것"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총부리에 겨워진 사대부 영에 고애신(김태리)과 유진 초이가 마주 서있는 모습이 펼쳐졌다. 그리고 "꽃은 이래도 500년을 이어져 온 나라요. 그런 조선이 평화롭게 켜어발려지고 있소. 나라꼴이 이런데 누군가는 싸워

야 하지 않겠소"라는 고애신의 비장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오면서, 복직한 감성을 고취시킨다.

애처로운 바이올린 음색이 배경으로 깔린 가운데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들이 목갈기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에 이어 처절한 전쟁터의 사투, 총을 쏘는 일본군의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돼 가슴을 울격하게 하는 감동을 배가시키고 있다.

두 번째 버전 티저에서는 '미스터 선샤인'에 출연하는 등장인물들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져 노출되는 파격적인 영상 구성으로 관심을 불 지폈다.

독립문을 지나쳐 뚝뚝뚝 걸어가는 유진 초이의 모습 이후 출연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찰나의 순간, 섬광처럼 지나가는 것. 이어 "그들이 원한 단 하나는 제나라 조선의 '주권'이었다"라는 의미심장한 문구에 맞물려 처절한 유진 초이의 울부짖음과 고애신의 애절한 눈물, 구동배(유연석)와 이양호(김민정), 김희성(변요한)이 한 쪽의 영화 같은 포스를 담아내, 역대급 레전드 드라마의 진가를 입증해냈다.

티저를 본 시청자들은 "캐스팅 작

가 감독 뭐하냐 빠지는 게 없다. 그래서 7월 7일은 언제 오는 거죠?", "진짜 너무 잘 만든 듯. 그리고 작품내용에 의병이야기가 너무 기대됩니다. 티저에 나오는 대사도 이렇게 좋으면 본편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저번보다 더 충격! 켈리 대박이다!", "엄청나네요. 그냥 스케일만 큰 게 아니라 내용도 깊이가 다르네요"라면서 뜨거운 호응을 쏟아냈다.

제작사 측은 "네 번째 공개하는 티저는 두 가지 버전으로 완성, 작품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드러내려고 했다"며 "항상 대한민국을 뒤흔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 김은숙 작가, 이응복 감독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힘을 합쳤다. 거기서 뿜어져 나올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tvN 토일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은 신미양요(1871년) 때 군함에 승선해 미국에 떨어진 한 소년이 미국 군인 신분으로 자신을 버린 조국의 조선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로 24부작으로 구성된다.

'무법 변호사' 후속으로 오는 7월 7일 밤 9시 첫 방송된다.

'슈츠' 장동건x채정안의 '쿵쾅 케미'



'슈츠' 채정안과 장동건의 '쿵쾅 케미'가 매주 빛을 발하고 있다. 갈등을 화해로 빠르게 해소하는 두 사람의 예상치 못한 호흡이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것.

현재 방송 중인 KBS 수목드라마 '슈츠' (연출 김진우/ 극본 김정민)에서 극 중 흥다함(채정안 분)과 최강석(장동건 분)의 13년 시간 앞에는 어떠한 갈등도 '순삭(순식간에 삭제)'될 뿐이었다. 두 사람의 끈끈한 애정은 깔끔한 화해를 이끌어내 감탄을 자아냈다.

지난 방송에서 흥다함은 최강석의 분노를 사게 됐다. 이는 최강석을 돕기 위해 오병욱 김사의 증거물을 강하연(진희경 분)대표에게 전달할 것을 들켰기 때문.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은 강석을 위한 것이었고, 이를 설명하긴 했지만 강석의 성격을 잘 아는 다함은 이미 사직서를 낼 각오를 하고 있었다.

매주 환상의 조합으로 완벽한 콤플렉스를 이루는 이 둘의 조합이 갈등을 겪게 되자 긴장감이 생기는 반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

다. 특히 평소에도 흥다함과 최강석의 서로 '핑퐁'처럼 오가는 긴결하고 짧은 대화법이 극의 재미를 더했던 만큼 이번 화해의 과정에서도 이를 기대했던 터. 역사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혹 들어오는 그리고 흥다함의 깔끔 선방(?)이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흥다함은 강석에게 "지금 나한테 사과하는 거예요?"라고 하자, "그래" 하며 대답하는 강석에게 "뭐가 미안한데요?"라며 일반적인 비서라고 볼 수 없는 한방을 날렸다. 상하관계이지만 가끔씩 척도 해보는 흥다함의 매력이 빠질 수 없는 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세 화해해 버린 두 사람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늘 하던 게 있다며 장난기가 득득한 모습으로 함께 방에 들어가는데 이 장면이 알콩달콩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서 보는 이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안겨줬다.

이처럼 흥다함과 최강석의 케미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슈츠'의 원톱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상황.

나아가 서로가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된다는 존재임을 알고 있기에, 알게 모르게 챙기는 두 사람의 우정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비밀의 정원', 심리분석+재미로 시청자 사로잡았다



'비밀의 정원'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올해 설 파일럿으로 방송되며 많은 화제를 모았던 tvN '비밀의 정

원'은 지난 28일 오후 정규 편성 첫 방송에서도 심리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은 물론, MC로 나선 정형돈, 성시경, 장윤주의 솔직한 입담으로 안방극장을 몰입하게 만들었다.

이날 워너 강승윤과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게스트로 출연, 일상 공개를 통해 본인도 몰랐던 심리 상태와 성격 유형에 대한 심도 있는 토크를 이어갔다.

관찰 카메라 속 돈스파이크는 주변인들의 감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이타성은 굉장히 높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행동이 어린 시절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현제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투자하는 돈스파이크의 유쾌한 변모도 웃음을 안겼다.

그러면서도 노후 걱정을 하는 돈스파이크를 향해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와 정신건강의학과 양재웅 전문의는 "타고난 모험심도 좋지 만 장기적인 목표를 만들어 미래를 대비하라"며 진정성 어린 조언을 전해 훈훈함을 안겼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일상인 직장 상사", "가족보다는 본인이 우선인 남편" 등 시청자들의 사연에 대한 속 시원한 심리 토크도 계속돼 유익함을 배가시켰다.

특히 MC 정형돈, 성시경, 장윤주는 어디에서도 말하지 못한 다양한 고민들에 함께 웃고, 함께 흥분하며 탁월한 공감 능력을 발휘, 앞으로의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방탄소년단 '페이크 러브' 뮤비, 자체 최단시간 1억 뷰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자체 최단 시간 뮤직비디오 조회 수 1억 건을 돌파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크 드림' 리믹스 등을 1억 뷰에 올렸다.

앞서 '페이크 러브' 뮤직비디오는 5분이 넘는 분량임에도 한국 가수 역대 최단 시간인 8시간24분 만에 1000만 뷰를 20시간48분 만에 2000만 뷰를 각각 넘었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영상미가 특징으로 어두운 이별의 감성을 일곱 멤버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리브 유어셀프 전 티어'는 세계 음반 차트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공개 직후 8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를 비롯해 앨범 전곡이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Spotify)의 '글로벌 톱 200' 차트에 모두 진입했다.

발매 직후 일주일간의 총동 앨범 판매량도 100만 장을 넘겼다.

앞서 '페이크 러브' 뮤직비디오는 5분이 넘는 분량임에도 한국 가수 역대 최단 시간인 8시간24분 만에 1000만 뷰를 20시간48분 만에 2000만 뷰를 각각 넘었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영상미가 특징으로 어두운 이별의 감성을 일곱 멤버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리브 유어셀프 전 티어'는 세계 음반 차트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공개 직후 8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를 비롯해 앨범 전곡이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Spotify)의 '글로벌 톱 200' 차트에 모두 진입했다.

발매 직후 일주일간의 총동 앨범 판매량도 100만 장을 넘겼다.

오늘의 운세 2018년 5월 28일 금요일 (음력 4월 14일)



▶**경계** ㄷ, ㅍ, ㅎ 성씨 기본 내키는 대로 한 말 탓에 위상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1, 6, 9월생 목숨은 금물. 하나로 만족하라. 소, 용, 닭띠가 당신을 보고 있다. 있는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신제** ㄱ, ㄷ, ㅅ 성씨 직장에서는 승진 아니면 영전수 있다. 사임하려면 동업자 필요 없다. 자영업자는 행운이 가득하다. 여수 선한 주변을 정리하고,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일 듯. 8, 9, 12월생 타인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다.



▶**홍희** ㄹ 남들은 즐겁겠으나 그대는 몸도, 마음도 바쁜 하루 겠다. 2, 3, 9월생 눈치 보는 격. ㄱ, ㅎ, ㅈ 성씨 당신의 성실함은 하늘이 안다.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라. 동, 남쪽 귀인의 도움으로 웃음꽃이 피겠다. 투자는 신중히 하라.



▶**진희** 3, 4, 9월생 여성 하는 일은 더욱 잘 되고, 놀고 있다면 원가를 시작해 바쁜 한 해가 될 듯. ㄷ, ㅂ, ㅎ 성씨 사소한 일로 가정이 불화하겠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정에도 시간을 배려하라. 대화의 장을 열어 화목을 유지해야 매사 순조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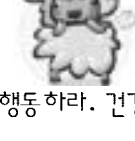
▶**용** ㄹ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미래가 좋다. 2, 5, 11월생 작년에 이루지 못한 직업 전환은 음력 2~3월 안에 좋은 쪽으로 이뤄진다. 애정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때가 대운이다. 친할수록 금전 거래를 멀리하라.



▶**진희** ㄱ, ㅂ, ㄷ 성씨 남에게 줄 것은 없고, 받을 것만 있다 생각하지 말라. 2, 7, 10월생 원가 찾으려면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라.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호주머니에 있는 것마저 내준다. 동쪽이 길하다.



▶**정희**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장래를 생각하라. 2, 5, 9월생 ㄱ, ㅂ, ㅍ 성씨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존경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대할 것. 당신이 여자라면 지금 하는 사업 외에 구상하는 사업이 있으면 단장 추진하라. 대성한다.



▶**정희** ㄱ, ㄷ, ㅍ 성씨 생각보다 수입이 적다 안달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라. 때가 되면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다. 1, 3, 6월생 느긋한 자세로 함께하는 사람을 믿지 말고 자신이 직접 행동하라. 건강은 신경을 너무 쓰지 말고, 근신하는 것이 상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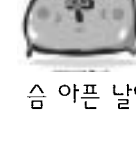
▶**용희** ㄹ ㄱ, ㅂ, ㅎ 성씨는 과감히 변신해 날개를 펼치라. ㄱ, ㄷ, ㅅ 성씨 함께 있는 사람과 애정적으로 벽을 쌓고 있는 격. 2, 10, 11월생은 자존심이 무척 상하겠다. 북쪽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1, 3, 5월생 검은색을 삼가라.



▶**정희** 투자한 것까지 생각하면 지출만 많다. ㄱ, ㄷ, ㅎ 성씨 험담쟁지만 인내하라. 4, 6, 8월생 가족에게 진실한 애정으로 대하면 사업은 발전하고, 안정할 수 있다. 쥐, 말, 개띠를 피하고 서쪽일 추진하라. 파란색이 마음에 안정을 준다.



▶**정희** ㅂ, ㄱ, ㅅ 성씨는 건강과 가정을 잘 챙겨야 한다. 준 것은 못 받고, 줄 것도 못 주는 형편이다. 1, 2, 3월생 남, 서쪽 일을 해결해야 한다. 동서남북으로 뛰는 길밖에 없다. 토끼, 닭띠에게 신경을 써야겠다. 동쪽으로 가는 것은 괜찮으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정희** ㄹ ㄱ, ㅅ 성씨 노력하면 할수록 수확이 있다. 허영심을 버리고, 계획대로 추진하라. 3, 6, 9월생에게 ㄷ, ㅈ, ㅎ 성씨가 필요하다. 기혼자는 부부 갈등을 조심하라. 애정은 가슴 아픈 날이니 서쪽으로 가지 말 것.